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3, 729-748

성인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 분노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 해 진 국립나주병원
신 현 균 전남대학교
홍 창 희† 국립나주병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애착유형에 따른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양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특성분노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분노표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음주문제, 애착유형, 특성분노, 분노표현 양식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성인의 애착유형에 따른 특성분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의존형과 두려움형 애착집단은 안정형 애착집단보다 특성분노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두려움형 애착집단은 안정형 애착집단보다 분노억제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다른 애착집단 간에는 분노표현 양식에서 차이가 없었다. 애착집단에 따라 분노표현의 효율성이 특성분노를 조절하여 음주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본 결과, 의존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집단에서 분노표현의 효율성이 특성분노를 조절하여 음주문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형과 거부형 애착집단에서는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음주문제, 애착유형, 특성분노, 분노표현 효율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창희 / 국립나주병원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Fax : 061-330-4150 / E-mail : wana1020@hanmail.net

www.kci.go.kr

음주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음주율이 1997년에 97.3%에서 2000년에는 99.2%로 증가했고(조성기, 장승옥, 윤혜미, 이혜경, 최현숙, 제갈정, 2001), 보건복지부(2001)에 의하면 대학생의 평균 음주율이 85.6%로 일반 성인들의 평균 음주율 68.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음주를 하고, 이러한 음주는 친교 목적의 사교적 음주(social drinking)를 넘어 신체적, 심리적, 학업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등에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Institute of medicine, 1990)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음주자 개인의 건강, 학업 및 대인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김용석, 김정우, 김성전, 2000; 최현숙, 2001).

개인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은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과 함께 스트레스 및 정서적 요인, 분석학적 이론, 학습이론 등의 심리학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다. 음주욕구를 유발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건 음주행동이 음주문제로 발전하는 데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술을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음주행동에 문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이 음주문제를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음주문제와 애착간 관련 연구에서 부정적인 자기 모델이 음주문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Abigail, Tibor, Levine, & Moore, 2002),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지닌 불안정 애착유형은 음주행동 및 음주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경우 사고와 기대 같은 인지내용과 부정적 정서 등이 스트레스와 음주행동 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임영란, 2000),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음주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심리학적인 요인으로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인 성인애착유형과, 기질적 분노경향을 일컫는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 같은 개인내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가정하고, 이들 변인들을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주목하였다.

Bowlby(1973)는 애착과 같은 초기 대인관계 양상을 통해서 자신이 돌봄과 주의를 받을 만한가 하는 신념을 포함하는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이런 내적 작동 모델은 개인의 기대, 지각,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고(Collins & Read, 1990; Lamb, Gaensbauer, Malkin, & Schultz, 1985),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일관된 애착유형의 연속성을 제공하고 있다(Bretherton, 1985; Main, Kaplan, & Cassidy, 1985).

성인애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틀을 제공한 것은 Hazen과 Shaver(1987),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이다. Hazen 등(1987)은 연인들 간 유대관계는 영아와 부모간 정서적 유대관계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영아기에 나타나는 3유형 애착모델(안정, 회피, 불안/양가)이 성인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가를 검증하였다. Bartholomew 등(1991)은 애착유형의 지속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린시절의 애착경험이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을 총괄하는 내적 표상으로서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자기에 대한 표상과 타인에 대한 표상의 자기-타인 이원모델에 따라 성인 애착을 안정형(secure), 의존형(preoccupied), 두려움형(fearful) 및 거부형(dismissing)의 4유형으로 구분하였다.

Brennan, Shaver와 Tovey(1991)는 부모가 알코

www.kci.go.kr

올 중독자였던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의 3유형 모델과 4유형 모델을 비교한 연구에서 Bartholomew 등(1991)의 4유형 모델이 지지됨을 밝혔다. 장휘숙(1997)도 국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모델을 비교한 결과 4유형 애착모델이 성인 애착유형을 더 민감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애착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안정형 애착 유형은 대인관계 및 정서경험에서 보다 적응적이었고(Bartholomew & Shaver, 1998; Cassidy & Brlin, 1994; Collins, 1996; Cooper, Shaver, & Collins, 1998; Kirkpatrick & Davis, 1994; 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1998), 불안정 애착 유형은 내적 모델의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으로 그들의 자원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경험 및 대인관계에 투입되는 인지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 Read, 1994). 이는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경험 및 대인관계 양상, 혹은 갈등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 문제음주의 보호요인으로서 정서적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 가족 기능과 사회적 지지 요인이 제안되었고(호산나, 2004), 가족은 가장 강력한 보호 요인 중 하나로서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숙, 2002; Turner, 1994). 또한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음주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순, 2000).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나 다른 대인관계에서 형성되는 성인애착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애착유형과 음주문제간의 간접적인 관련성을 볼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불안정 애착유형의 문제음주는 알코올을 정서조절의 수단으로 병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Brennan과 Shaver(1995)는 3유형 애착 모델과 정서조절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유형인 회피형과 불안/양가형 애착집단에서 대처동기가 음주행동을 이끄는 주요동기로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Ognibene과 Collins (1998)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4유형 애착 모델과 정서조절 대처전략간 연구에서, Brennan 등(1995)의 연구와 유사하게 불안정 애착유형인 의존형과 두려움형 집단은 음주행동을 포함한 회피적인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안정형 애착집단은 회피적인 대처와의 관련을 보이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애착의 두 차원인 자기 모델과 타인 모델에 따른 알코올 관련 연구에서, 부정적인 자기 모델은 알코올 사용수준에 따라 음주문제를 잘 설명해 주었고, 부정적인 자기 모델과 음주문제간 관계를 음주대처동기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bigail 등, 2002). 이들 연구는 자기와 타인에 대해 형성된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지닌 불안정 애착유형은 음주대처동기 같은 관련된 변인들의 매개를 통해 음주행위 및 음주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애착유형이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기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어서, 애착유형과 음주문제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내적 특성을 고려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특성 중 특히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에 주목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분노와 음주행위 및 음주문제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김인수, 백기청, 김중빈, 1994; 박영이, 2002; 한귀원,

www.kci.go.kr

김명정, 김성곤, 변원탄, 1996; 허지영, 1998; 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Leibsohn, Gaensbauer, Malkin, & Schultz, 1992; VanRiette, 2001). 여기에서의 분노는 특성분노를 말하며, 특성분노란 분노경향성과 상태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정의된다(Spielberger, 1988). 높은 특성분노를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를 빈번하게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Spielberger, Russel, Jacobs, & Worden, 1985), 이들은 분노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덜 긍정적이며, 덜 건설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며, 부정적인 분노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Deffenbacher, Demm, & Brandon, 1986). 또한 Spielberger(1988)는 분노표현 양식에 따라 분노유발상황과 관련된 사고나 화난 감정이 경험되지만 이를 억누르는 분노의 내적 억제(anger-in)와, 화난 감정을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혹은 극단적 모욕 등과 같은 언어적 공격이나 신체적 공격행동으로 표현하는 분노의 외적 표출(anger-out)로 양분하였다. 여기에 분노를 조절하고 관리하려는 분노통제(anger-control)를 고려하여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의 분노표현척도를 구성하였다.

분노억제는 화는 나지만 내색하지 않고 혼자 투덜거린다든지, 화를 꾹 참고 일부러 괜찮다는 식으로 말한다든지, 속으로는 욕하지만 가만히 혼자 열을 삭힌다든지 하는 것과 행동적으로 화난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지 않고 상대를 회피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 딴 일을 하는 것 등을 말한다(서수균, 2004 재인용). 분노표출은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의 타인이나 대상에게 나타내는 것으로서(Funkenstein, King, & Drolette, 1954),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감정이 실린 말을 한다든지, 물건을 던지거나 바닥을 때리거나 문을 꽝 닫는 등의 화난 행동이 그 예에 속한다(Deffenbacher & Hazaleus, 1985).

분노통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 감정을 조절되고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흥분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자신의 의견과 상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분노억제와 표출 및 통제의 구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되는 반면, 분노통제는 순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되었다(Biodeau, 1992; Gottlib, 1999). 즉 분노통제는 효율적인 분노표현양식으로 개인의 내적 조절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분노통제를 많이 할수록 개인은 분노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특히 분노정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고영인(1994)은 의사소통훈련에서 자기노출, 자기표출 및 자기표현의 개념을 조합하여 분노의 자기주장적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 감정을 언어적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Spielberger 등(1995)의 분노통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주장적 분노표현이 높을수록 분노표현이 효율적이며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들이 있다(김미란, 2001, 김득란, 1986, 전성희, 1995, Ellenson, 1982). 따라서 개인의 기질적인 분노가 높아도 자기주장적 분노표현이나 분노통제 등의 효율적인 분노표현 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면 이에 따른 행동상의 문제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분노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 점수는 낮을수록 개인의 분노표현 효율성[1)]이 높다고 할 수

www.kci.go.kr

있다. 분노표현의 효율성(effectiveness of anger expression)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분노통제의 단일점수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분노표현양식(분노통제)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분노억제, 분노표출)에서의 차이로 개념화하였다.

분노와 음주행동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사고, 기대, 신념과 같은 인지내용과 우울, 부정적 정서, 부적절한 대처방식 등은 주로 스트레스와 음주행동 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임영란, 2000), 알코올 의존 집단에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부적절한 대처방식이 음주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성인보다 음주행동을 많이 하는 대학생 집단도 분노정서가 높을수록, 분노표현이 부적절할수록 음주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심각한 음주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음주문제는 분노정서경험 뿐만 아니라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거나 혹은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분노표현과도 관련이 있다(박영주, 2004; Mustante & treiber, 2000). 이는 개인의 분노정서가 높더라도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에 따라 음주문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음주문제에 관련된 개인내적 변인으로서 특성분노와 함께 분노표현양식의 역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음주욕구에 대한 단서가 된다고 한다. 한귀원 등(1996)의 연구에서는 음주욕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내적 자극으로 인하여 화가 날 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김인수 등(1994)의 연구에서는 음주동기로서 사회적 스트레스와 분노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분노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음주문제를 더 많이 보였는데, 이는 음주 행위가 분노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박영이, 2002). Cautin(2001)은 청소년기의 분노는 알코올 관련 문제로 외현화된다고 하였고, Leibsohn(1992)은 높은 분노를 보이는 대학생들이 낮은 분노를 보이는 대학생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고 음주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특성분노는 음주행위를 동기화하고 유지시키는 부적 정서요인으로 그 수준에 따라 음주문제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Mustante와 treiber(2000)의 연구에서는 분노억제가 많은 여학생이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박영주 등(2004)의 국내연구에서는 분노표출이 많은 여성이 분노표출이 적은 여성보다 음주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되는 연구결과는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제시된 애착유형과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보면, 애착유형과 특성분노의 관계에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분노를 경험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Bowlby, 1980). Mikulincer(1998)는 안정형 애착유형은 순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경험하고, 불안정 애착유형은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하

1)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 효율성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분노표현양식의 세 가지 하위유형을 단일 점수화하였음(분노표현 효율성= 분노통제점수 - 분노억제점수 - 분노표출점수).

www.kci.go.kr

였다. 김세진(1999)의 연구에서는 안정형 애착 집단의 특성분노가 가장 낮았고, 불안정 애착 유형인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의 경우 특성분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양식의 경우, 분노표현 양식은 발달 과정에서 학습되고, 학습된 분노표현 양식이 부적절한 경우 많은 심신의 부적응이 야기된다고 제안되었다(Gesell과 Ames, 1956). 안정형 애착유형은 높은 개인적 효능감을 지니고 있고 타인에 대한 선한 의지를 믿기 때문에, 통제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분노를 표현한 이후에도 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반면 불안정 애착유형은 분노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반응과 통제되지 못한 적대감 그리고 분노표현 이후에 괴로움 및 부적인 정서들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Shaver & Hazen, 1993; Collins & Read, 1990). 또한 Searle과 Meara(1999)는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경험의 연구에서. 안정형의 경우는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표현적이기 때문에 감정표현을 쉽게 여기고, 강렬한 감정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편안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한편 불안정 애착유형인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의 경우는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한다거나 감정경험을 제한한다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경험과 정서표현 양식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애착유형에 따라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양식이 다르고,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양식에 따라 음주문제가 다르게 나타남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강한 음주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애착유형에 따라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양식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한 애착유형에 따라 특성분노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분노표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불안정 애착 집단(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은 안정형 애착 집단에 비해 특성분노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애착 유형에 따라 분노표현 양식이 서로 다를 것이다.

2-1. 안정형 애착 집단은 분노통제를 많이 할 것이다.

2-2. 의존형 애착 집단은 분노표출을 많이 할 것이다.

2-3. 거부형 애착 집단은 분노억제를 많이 할 것이다.

2-4. 두려움형 애착 집단은 분노억제를 많이 할 것이다.

가설 3. 애착 유형에 따라 특성분노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분노표현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다를 것이다.

3-1. 안정형 애착 집단은 분노표현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의존형 애착 집단은 분노표현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거부형 애착 집단은 분노표현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4. 두려움형 애착 집단은 분노표현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 법

www.kci.go.kr

연구대상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400명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전체400명중 질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3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남자는 206명(52.3%), 여자는 188(47.7%)명이었다. 이들의 연령범위는 19세에서 29세였고 평균 연령은 22.7세(SD=±2.32)였다.

연구도구

음주문제 질문지

신행우(1998)가 제작한 『음주문제 측정 질문지』로, 음주문제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음주로 인한 학업의 장애나 직무수행의 장애, 폭행이나 시비, 가족과의 마찰, 대인관계의 문제 등으로 보았다. 음주문제는 주로 알코올 남용(혹은 문제성 음주)의 진단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며, 내성이나 금단증상 같은 알코올 의존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질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0=전혀 그런 적이 없다, 4=거의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각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세 음주문제 영역의 내적일치도 계수 α는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손상의 경우는 .88, 행동상의 문제는 .84,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2]은 .79로 나타났다.

2)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 3문항은 행동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중복됨.

관계유형 척도

애착유형 질문지는 Bartholomew와 Horowitz (1991)의 4유형 성인 애착척도, Hazan과 Shaver (1987)의 3유형 성인 애착척도, Collins와 Read (1990)의 성인 애착질문지를 참고하여 Griffin과 Bartholomew(1994)가 제작한 관계유형척도(Relation Style Questionnaire; RSQ)이다. 이 질문지는 4유형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30문항의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이귀선과 정남운(2003)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귀선 등(2003)은 안정형에 3번, 9번, 10번, 15번, 28번 문항, 의존형에는 6번, 8번, 16번, 15번 문항, 거부형에는 2번, 6번, 19번, 22번, 26번 문항, 그리고 두려움형에는 1번, 5번, 12번, 24번 문항 등 총 18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고, 각 애착유형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유형을 개인의 애착유형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귀선 등(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는 .75였다.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 α는 안정형은 .58, 거부형은 .62, 의존형은 .51, 두려움형은 .76이었다.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

Spielberger(1988)가 제작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이하 STAXI)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1997)가 문화적,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여 번안 및 수정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STAXI이다. 이 척도는 44문항의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 분노표현양식(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연구목적에 맞게 상태분노를 제외한 특성분노척도(TAS)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분노가 높음을 의미한다.

www.kci.go.kr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한 분노표현 양식 24문항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를 측정하는 각각 8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차원의 점수범위는 8점에서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1997)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특성분노 .84, 분노표출 .74, 분노억제 .75, 분노통제 .88로 나타났다.

결 과

애착유형의 빈도

전체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표 1), 성인 애착유형에서 안정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두려움형, 의존형, 거부형의 순서로 각각 27.4%, 26.1%, 24.1%, 2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애착유형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에서는 안정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부형, 두려움형, 의존형이 높았지만, 여자 대학생에서는 불안정 애착인 두려움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존형, 안정형, 거부형의 순서를 보였다.

장휘숙(1997)의 연구에서는 안정, 의존, 거부, 두려움형이 각각 45%, 30%, 16%, 21%로 나타난 바 있고, 김동직과 한성열(1997)의 연구 1에서는 각각 40%, 34%, 11%, 15%였고, 연구 2에서는 각각 42%, 38%, 10%, 10%였다. 김광은(2004)의 연구에서는 각각 51%, 27%, 5%, 17%의 분포를 나타냈다. 각 연구마다 유형별 분포에 차이가 있지만 안정형은 전 연구에서 40%에서 50% 내외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안정형 애착이 27.4%로 선행연구들에 비해 비율이 낮은 편이었고 반면 두려움형 애착은 26.1%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과 성별간의 차이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과 성별 간에 차이가 있

표 1. 애착유형 및 성별에 따른 분포

애착유형	전체(N=394)		남자(N=206)		여자(N=188)	
	N	(%)	N	(%)	N	(%)
안정형	108	27.4%	61	29.6%	47	25.0%
의존형	95	24.1%	40	19.4%	55	29.3%
거부형	88	22.3%	59	28.6%	29	15.4%
두려움형	103	26.1%	46	22.3%	57	30.3%

표 2. 변인간 상관

	특성분노	분노통제	분노억제	분노표출
음주문제	.31**	-.19**	.09	.44**

**p<.01

www.kci.go.kr

었다. 이 결과는 Batholomew 등(1991)의 연구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거부형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보다 두려움형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김광은(2004)은 이러한 성별간의 차이는 양성의 기본적 기질 차이나 각각의 문화에서 요구되는 성역할 등이 성별 애착유형 분포와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특성분노, 분노표현양식 및 음주문제간 상관관계

표 2를 보면, 특성분노와 음주문제(r=.31)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음주문제와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음주문제는 분노통제(r=-.19)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분노표출(r=.44)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분노표현 양식에서는 분노통제와 분노억제(r=.17), 분노표출과 분노억제(r=.26)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통제와 분노표출(r=.-.38)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양식

애착유형별 특성분노

애착유형(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에 따라 특성분노의 수준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 및 Scheffe 검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분노는 성인 애착 유형의 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_{(3,390)}$=4.32, p<.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의존형과 두려움형 애착집단이 안정형 애착집단보다 특성분노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거부형 애착집단은 안정형 애착집단보다 특성분노가 높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결과에서 의존형과 두려움형 애착집단은 안정형 집단에 비해 특성분노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부형 애착집단을 제외한 불안정 애착 집단(의존형, 두려움형)은 안정형 애착집단보다 특성분노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애착 유형별 분노표현 양식

애착유형에 따라 분노표현 양식(분노통제, 분노표출, 분노억제)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애착유형에 따른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의 평균점수(표준편차)

	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	F	Scheffe검증
특성분노	20.11(5.11)	22.58(5.29)	21.26(4.70)	22.18(6.17)	4.32**	1<2, 4
분노통제	20.88(3.84)	20.16(3.48)	21.16(4.10)	20.45(3.83)	1.26	
분노표출	14.60(4.05)	15.44(3.98)	14.72(3.89)	15.54(3.94)	1.50	
분노억제	15.64(3.74)	18.51(4.04)	17.99(4.00)	18.57(3.71)	13.50***	1<4

1: 안정형, 2: 의존형, 3: 거부형, 4: 두려움형,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p<.05, **p<.01, ***p<.001,

www.kci.go.kr

성인애착 유형별로 분노표현 양식의 평균과 대비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애착 집단에 따라 분노표현 양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38, p<.001: Wilk's Lamda=.88; ETA^2=.04). Bonferroni 교정 알파수준(.017)을 사용하여 각 분노표현 양식을 분석한 결과, 분노억제는 애착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_{(3,390)}$=13.50, p<.001), 분노통제와 분노표출은 애착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_{(3,390)}$=1.26, p=0.29; $F_{(3,390)}$=1.50, p=0.22). 대비 결과 안정형 애착집단과 두려움형 애착집단 간에 분노억제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려움형 애착집단은 분노억제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2-4가 지지되었다. 가설2-1, 2-2, 2-3은 지지되지 않았다.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

애착유형에 따라 분노표현의 효율성이 특성분노를 조절하여 음주문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애착 집단의 결과가 표 4, 표 5,

표 4. 음주문제에 대한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의 위계적 회귀분석(안정형)

모형	회귀계수		t	R	R^2	$\triangle R^2$	F
	B	β					
1 특성분노(A)	-.11	-.13	-1.16	.408a	.166		10.46***
분노표현효율성(B)	-.27	-.46	-4.32***				
2 특성분노(A)	-.05	-.06	-.37				
분노표현효율성(B)	-.36	-.63	-1.83	.410b	.168	.002	.25
A * B	.005	.21	.50				

a 예측값: (상수), 특성분노, 분노표현효율성

b 예측값: (상수), 특성분노, 분노표현효율성, 특성분노*분노표현효율성

***p<.001

표 5. 음주문제에 대한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의 위계적 회귀분석(의존형)

모형	회귀계수		t	R	R^2	$\triangle R^2$	F
	B	β					
1 특성분노(A)	.14	.12	.93	.44a	.20		11.24***
분노표현효율성(B)	-.27	-.35	-2.63*				
2 특성분노(A)	-.34	-.30	1.63				
분노표현효율성(B)	.40	.52	1.70	.52b	.28	.08	9.82**
A * B	-.03	-1.24	-3.13**				

a 예측값: (상수), 특성분노, 분노표현효율성

b 예측값: (상수), 특성분노, 분노표현효율성, 특성분노*분노표현효율성

*p<.05 **p<.01 ***p<.001

www.kci.go.kr

표 6. 음주문제에 대한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의 위계적 회귀분석(거부형)

모형	회귀계수		t	R	R^2	$\triangle R^2$	F
	B	β					
1 특성분노(A)	.25	.25	2.24*	.312a	.098		4.60*
분노표현효율성(B)	-.07	-.11	-.94				
2 특성분노(A)	.27	.27	1.45				
분노표현효율성(B)	-10	-.15	-.33	.313b	.098	.000	.01
A * B	.001	.05	.10				

a 예측값: (상수), 특성분노, 분노표현효율성

b 예측값: (상수), 특성분노, 분노표현효율성, 특성분노*분노표현효율성

*p<.05

표 7. 음주문제에 대한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의 위계적 회귀분석(두려움형)

모형	회귀계수		t	R	R^2	$\triangle R^2$	F
	B	β					
1 특성분노(A)	.24	.26	2.21*	.43a	.19		11.60***
분노표현효율성(B)	-.16	-.22	-1.88				
2 특성분노(A)	-.27	-.30	-1.72				
분노표현효율성(B)	.69	.97	3.24**	.56b	.31	.12	16.20***
A * B	-.04	-1.64	-4.27***				

a 예측값: (상수), 특성분노, 분노표현효율성

b 예측값: (상수), 특성분노, 분노표현효율성, 특성분노*분노표현효율성

*p<.05 **p<.01 ***p<.00

표 6, 표 7에 제시되었다.

안정형 애착 집단에서 분노표현 효율성이 특성분노와 상호작용하여 음주문제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1은 음주문제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총설명량이 16.6%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모형 2는 특성분노, 분노표현 효율성 그리고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량이 16.8%로 나타났고 상호작용으로 인한 R제곱의 변화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1로 작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형 애착 집단의 경우 특성분노와 음주문제 간에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정형 애착 집단에서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의존형 애착 집단에서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이 상호작용하여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www.kci.go.kr

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1은 음주문제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총설명량이 2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모형 2는 특성분노, 분노표현 효율성 그리고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량이 28%로 나타났고 R제곱의 변화량이 8% 증가하였다(p<.01). 또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1.24로 매우 큰 값을 갖는다(p<.01). 이러한 결과는 의존형 애착 집단의 경우 특성분노와 음주문제 간에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존형 애착 집단에서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거부형 애착 집단에서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이 상호작용하여 음주문제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1은 음주문제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총설명량이 9.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모형 2는 특성분노, 분노표현 효율성 그리고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량이 9.8%로 상호작용으로 인한 R제곱의 변화량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5로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형 애착 집단의 경우 특성분노와 음주문제 간에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거부형 애착 집단에서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 가설3-3이 지지되지 않았다.

두려움형 애착 집단에서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이 상호작용하여 음주문제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1은 음주문제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총설명량이 1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모형 2는 특성분노, 분노표현 효율성 그리고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효율성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량이 31%로 나타났고 R제곱의 변화량이 12% 증가하였다(p<.001). 또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1.64로 매우 큰 값을 갖는다(p<.001). 이러한 결과는 두려움형 애착 집단의 경우 특성분노와 음주문제 간에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려움형 애착 집단에서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 가설 3-4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 성인 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심리학적인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의 애착4유형에 따른 특성분노 수준의 차이와 분노표현 양식을 알아보고, 특성분노가 음주문제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성인애착 집단에 따라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인 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 음주문제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특성분노와 음주문제의 관계는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음주문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이(2002)의 연구처럼 분노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음주 행동에 더 많은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

www.kci.go.kr

다. 분노표현 양식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음주문제는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그리고 분노통제가 낮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영주 등(2004)의 연구에서 분노표출이 많은 여성이 음주율과 음주문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의 경우,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음주행위를 많이 하고 외현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음주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노통제를 많이 할수록 음주문제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분노를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개인의 능력이 부적응적인 음주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특성분노 수준의 분석 결과, 의존형과 두려움형 애착집단이 안정형 애착집단보다 특성분노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형의 특성분노가 가장 낮고 불안정하게 애착된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의 특성분노 수준이 높게 나타난 김세진(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에서 거부형 애착은 안정형 애착에 비해 특성분노가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 거부형 애착의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따라서 성인애착 4유형 모델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안정형 애착집단 다음으로 거부형 애착집단의 특성분노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 모델을 가진 불안정한 애착집단들은 광범위한 분노 유발상황에서 기질적인 분노 경향성이 안정형 애착집단에 비해 더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분노표현 양식의 분석 결과, 안정형 애착집단과 두려움형 애착집단 간에 분노억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려움형 애착집단은 분노억제를 많이 사용하여 분노 정서를 빈번히 경험하고 있지만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두려움형 애착의 사람은 의존성은 있으나 표현을 적게 하므로 감정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Searle와 Meara(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나머지 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애착집단에서는 분노표현 양식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표 3의 각 변인들의 관계에서 분노통제와 분노억제(r=.17)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들의 분노표현 양식이 명확하게 3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 표 4의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표현 양식의 평균을 보면, 네 개의 애착집단 모두에서 분노통제점수 다음으로 분노억제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집의 편향성이나 측정도구상의 문제로서 애착유형에 따른 주된 분노표현 양식이 민감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분노표현 효율성이 특성분노를 조절하여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애착 집단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 효율성의 개념은 분노통제가 높고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는 낮은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안정형 애착집단에서 특성분노와 음주문제 간에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형 애착집단이 다른

www.kci.go.kr

불안정 애착집단들에 비해 특성분노가 유의하게 낮아서 음주문제에 대한 분노표현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의존형 애착집단에서는 특성분노와 음주문제 간에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의존형 애착의 사람들이 특성분노가 높더라도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많이 하면 음주문제가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존형 애착집단은 분노표현 효율성을 높여서 높은 특성분노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 보인다. 즉, 과도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지양하고 분노통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음주문제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부형 애착집단에서 특성분노와 음주문제 간에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거부형 애착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애착유형 중에서 특성분노 수준이 가장 낮기 때문에 안정형 애착집단과 마찬가지로 음주문제에 대해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두려움형 애착집단에서는 특성분노와 음주문제 간에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려움형 애착의 사람들이 특성분노가 높더라도 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많이 하면 음주문제가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존형 애착집단과 마찬가지로 기능적인 분노표현 능력을 길러 기질적으로 높은 분노경향성을 조절해 주는 방식으로 음주문제의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애착유형에 따라 특성분노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분노표현 효율성의 조절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애착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 및 개입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개인내적 특성인, 성인애착 유형의 역할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이다. 성인애착의 개념을 한 개인의 지속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으로 보고,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과의 관계를 통해 음주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불안정한 애착집단(의존형, 거부형)은 안정형 애착집단보다 특성분노가 높았고 이것이 해로운 음주 양상과 관련되었다. 이는 애착유형에 따른 특성분노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음주문제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또한 의존형과 두려움형 애착집단에서 특성분노가 높더라도 효율적인 분노표현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음주문제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개인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 경향성은 쉽게 바뀔 수 없지만,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분노표현방식을 학습한다면 음주문제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음주문제를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유형과 분노표현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노통제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음주문제의 중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 유형을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피험자의 자기 보고에 의존하여서 피험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이외의 애착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이나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www.kci.go.kr

분류가 좀 더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애착유형 분포에서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 표집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학과, 학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유형과 음주문제 간에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양식을 통하여 간접적인 관계를 확인하는데 머물렀다. 아직 성인애착개념은 인과관계를 추정할만한 확립된 이론적 모델이 없다. 따라서 성인애착이 어떠한 매개변인을 거쳐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그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유형과 음주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개인내적 변인들을 충분히 고찰하여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로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각한 음주관련 문제(예, 알코올 의존)로 발전되기 이전에 미리 가벼운 음주문제 단계에서 중재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취지를 두고 대상자 선정을 대학생 집단으로 제한하였다. 이 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넓은 연령대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고영인 (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김광은 (2004). 성인 애착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2, 53-69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김득란 (1986). 자기표현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강릉대학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5, 75-87.

김미란 (2001). 고등학생의 분노수준과 분노표현 양식에 따른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 석사 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세진 (1999).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경험 양상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2001).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 요인들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47, 71-106.

김인수, 백기청, 김중빈 (1994). 일차성 성인 남자 알코올 중독 입원환자의 우울 정도에 따른 임상 양상 비교, 신경정신의학 33(5), 1018-1023.

박영이 (2002). 사적 자의식과 특성 분노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박영주, 한금선, 신현정, 강현철, 문소현 (2004).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와 문제행동 및 건강상태. 대한간호학회지, 34(7), 1234-1242.

박정숙 (2002). “도시 저소득층 알코올 사용장애의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박종순 (2000).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2001). “대학생음주와 대학생활”.

www.kci.go.kr

건강길라잡이. 3월, 1-16.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지영 (1996). 특성 분노의 반응양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이귀선, 정남운 (2003).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79-793
임영란 (2000). 알코올의존 환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검증 및 심리적 위험인자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장휘숙 (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 123-138.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전성희 (1995). 여고생의 분노수준 및 분노표현 유형에 따른 우울, 불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기, 장승옥, 윤혜미, 이혜경, 최현숙, 제갈정 (2001). 대학생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최현숙 (2001). "대학사회의 음주". 알코올 백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58-64.
한귀원, 김명정, 김성곤, 변원탄 (1996). 알코올의존 환자에서 음주 욕구를 유발하는 조건화 자극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5(4), 811-812.
허지영 (1998).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호산나 (2004).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Abigail M. McNally., Tibor P. Palfai., Rachel V. Levine., & Bianca M. Moore. (2003). Attachment dimension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among young adults The mediational role of coping motives. *Addictive behaviors, 28*, 1115-1127.
Alschuler, C. F., & Alschuler, A. S. (1984). Developing healthy response to anger: The Counselor's rol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26-29.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26-244.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35.
Brennan, K. A., Shaver, P. R., & Tovey, A. E. (1991).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al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51-466.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www.kci.go.kr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Burge, D., Hammen, C., Davila, J., Daley, S. E., Paley, B., Lindberg, N., Herzberg, D., & Rudolph, K. D.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cognition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wom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151-167.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971-991.

Cauti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Adolescence 36*(141), 163-70.

Cole, L. (1966). *Psychology of adolescence*. N.Y: Holt, Rinehart, and Wiston, Inc, 246-249.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Collins, N. L.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 for Explanation Emotion,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832.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80-1387.

Deffenbacher, J. L., Demm, P. M., & Brandon, A. D. (1986). High general anger: Correlates and treatmen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4*, 481-489.

Deffenbacher, J. L., & Hazleus, S. L. (1985). Irrational beliefs and anger arousal.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el, 26*, 47-52.

Deffenbacher, J. L.,Oetting, E. R., Huff, M. E. Cornell, G. R., & Dallager, C. J.(1996). Evaluation of two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to general anger reduc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551-573.

Ellenson, A. (1982). *Human relation.* N. J.: Prentice-Hall, Inc.

Funkenstein, D. H., King, S., S. H., & Drolette, M. E. (1954). The direction of anger during a laboratory stress-inducing situation. *Psychosomatic Medicine, 16*, 404-413.

Gesell, A., Ilg, F. L., & Ames, L. B. (1956). *Youth: The years from ten to sixteen.* N. Y: Harper & Row, Publishers, Inc., *542*, 38-341.

Gottli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 Co. Press.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www.kci.go.k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Lamb, M. E., Gaensbauer, T. J., Malkin, C. M., & Schultz, L. A. (1985).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Security of Infant-Adult Attachment. *Infant-Behavior and Development*, *8*, 35-45.

Leibsohn, Mattew todd. (1992). *The effect of anger on Alcohol-Related Consequences*, Colorado State University.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13-524.

Mikulincer, M., & Florian, V. (1995). Appraisal of and Coping with a Real-life Stressful Situation: The Contribution of Attachment Sty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406-414.

Morris, W. N., & Reilly, N. P. (1987). Toward the Self-Regulation of mood: Theory and Researth. *Motivation and Emotion, 11,* 215-249.

Mustante, L., & Treiber, F. A.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coping styles and lifestyle behaviors in teenagers. *J Adolescent Health*, *27*, 63-68.

Novaco, R. W. (1979). The cognitive regulation of anger and stress. In P. Kendall & S. Hollan(Ed.).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Theory, Research and Procedures*, NY: Academic Press.

Ognibene, T. C., & Collins, N. L.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ping strategi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323-345.

Rothenberg, A. (1971). On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4), 454-460.

Searle, B., & Meara, M. N.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147-158.

Spielberger, C. D.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Oriando,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5-30. New York: Hemisphere.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man, S. M.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Kassinove (Ed). *Anger disorder;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 50-67)*. Washington, DC: Tailer & Francis.

Stoner, S. B., & Spencer, B. (1987). Age and

www.kci.go.kr

gender differences with the Anger Express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 87-492.

Thayer, R. E., Newman, J. R. & McClain, T. M. (1994). Self-regulation of mood: Strategies for changing a bad mood, raising energy, and reducing t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10-925.

Vanriette, Catherine Aileen (2001). *Effects of Anger and Aggression On Driving Behavior*, M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원 고 접 수 일 : 2008. 6. 5.
수정원고접수일 : 2008. 7. 30.
게 재 결 정 일 : 2008. 8. 5.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3, 729-748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Trait-Anger, and Drinking Problem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Effectiveness

Hae-Ji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NaJu National Hospital

Hyoun-Gyu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ang-Hee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NaJu National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differences in trait-anger and anger expression pattern based on adult attachment styles. More specifically, it i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effectiveness between the trait-anger and drinking problems. We asked 394 college students to complete questionnaires about adult attachment style, trait-anger, anger expression patterns and drinking problems.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based on adult attachment styles: secure, preoccupied, dismissing, or fearful. The preoccupied and fearful groups had higher trait-anger scores than the secure group. The fearful group used significantly more anger-in patterns than the secure attachment group. Other groups didn't differ in anger expression patterns. The moder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 effectiveness between the trait-anger and drinking problems were significant in the preoccupied and the fearful groups, but not in secure and dismissing groups. Finall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 future studies.

Key words : Drinking Problems, Adult Attachment Style, Trait-Anger, Anger Expression Effectiveness.

www.kci.go.kr